



거침없는 'V행진'

“팀 최다 12연승 가자” 도로공사, 2승만 더

한국도로공사 모마(왼쪽)가 지난날 19일 경기도 화성종합체육관에서 열린 2025-2026 프로배구 여자부 IBK기업은행과 한국도로공사의 경기에서 스파이크를 하고 있다. 한국배구연맹

여자 프로배구 한국도로공사가 거침없는 질주로 구단 역사를 새로 쓸 준비를 마쳤다. 남자부에서는 선두 대한항공이 독주 체제를 굳히는 가운데 KB손해보험과 현대캐피탈이 그 뒤를 바짝 쫓으며 치열한 순위 싸움을 예고한다. 파죽의 10연승을 달린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주 두 경기에서 모두 승리할 경우, 구단 최다 연승 타이 기록인 12연승 고지를

이번주 팀 최다 연승 타이 도전 3일 흥국·7일 정관장 상대 새역사 베테랑 주포·철벽 수비 무적함대 여자부 역대 최다 15연승도 '짚' 밟게 된다. 여자부 단독 선두를 질주 중인 도로공사는 공수 균형이 완벽에 가깝다. 베테랑들의 노련한 경기 운영과 탄탄한 수비 조직력이

맞물리며 무적함대의 위용을 뽐낸다. 도로공사는 팀 득점(1032점), 공격 종합(41.64%), 오픈(36.2%), 이동 동격(62.07%), 서브 득점(세트당 1.205개), 블로킹 득점(세트당 2.523개), 리시브 효율(35.71%) 등 공수 대부분의 지표에서 1위를 달린다. 도로공사는 3일 인천체육관에서 열리는 흥국생명과의 인천 원정 경기에서 11연승에 도전한다. 이 경기에서 승리해 기세를 올린다면 7일 예정된 정관장과 원정 경기에서 대망의 12연승을 바라본다.

도로공사의 역대 최다 연승 기록은 2021-2022시즌에 달성했던 12연승이다. 만약 이번 주 2승을 쓸어 담아 12연승을 달성한다면, 다음 목표는 여자부 최다 연승 신기록이다. 여자부 역대 최다 연승 기록은 현대건설이 2021-2022시즌과 2022-2023시즌 한 차례씩 달성한 '15연승'이다. 도로공사가 이번 주 고비를 넘긴다면 현대건설의 대기록에도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다. 연승 행진을 저지해야 하는 상대 팀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순위 싸움이 치열한 중위권 팀들은 선두 도로공사를 잡고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어 경기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남자부에서는 대한항공의 고공비행이 계속된다. 탄탄한 선수층과 조직력을 앞세운 대한항공은 8연승 가도를 달리며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다. 강력한 대항마인 KB손해보험과 전통의 명가 현대캐피탈이 맹추격한다. 연합뉴스



우승 없는 선수 상금 랭킹 8위

PGA 임성재 올 74억 벌어

임성재(사진)가 올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우승 없이 가장 많은 상금을 번 선수 8위에 올랐다. 미국 골프 전문 매체 골프워크는 1일 올해 PGA 투어에서 우승 없는 선수들의 상금 순위 상위 20위까지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임성재는 올해 PGA 투어 대회에서 상금 508만2986달러(약 74억5000만 원)를 벌여 이 부문 8위에 이름을 올렸다. 임성재는 올해 PGA 투어 28개 대회에 출전, 세 차례 '톱10' 성적을 냈다. 임성재는 2020년과 2021년에 한 차례씩 PGA 투어 우승을 기록했다. 2025시즌 PGA 투어에서 우승 없이 가장 많은 상금을 가져간 선수는 페트릭 캔틀레이(미국)로 944만1931달러, 우리 돈으로 138억50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다. 캔틀레이는 전체 시즌 상금 순위에서도 9위를 기록했다. 올해 우승 없는 최다 상금 2위는 846만7191달러를 번 로버트 매킨타이어(스코틀랜드)다. 김시우도 389만102달러의 상금을 기록하며 이 부문 18위에 이름을 올렸다. PGA 투어 전체로 우승이 없는 최다 상금 1위는 안병훈이다.



김길리

쇼트트랙 임종언·김길리, 나란히 금빛 질주

쇼트트랙 남자 대표팀 신성 임종언(노원고)과 여자 대표팀 김길리(성남시청)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답페초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출전한 월드컵 마지막 메달 레이스에서 나란히 금빛 질주를 펼쳤다. 임종언은 1일(한국 시간) 네덜란드 도르트레흐트의 스포르트블레바르에서 열린 2025-2026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

트랙 월드컵 4차 대회 남자 1000m에서 1분25초877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3위로 달리던 임종언은 마지막 곡선 주로에서 아웃코스로 빠져나와 피에트로 시켈(이탈리아), 사오양 류(중국)를 모두 제치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끊었다.

임종언은 월드컵 1차 대회 남자 1500m에 이어 올 시즌 두 번째 월드컵 개인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는 준결승에서 '세계 최강' 윌리엄 단지뉴(캐나다)와 경쟁을 이겨내기도 했다. 임종언은 1위로 통과했고 단지뉴는 넘어

지면서 레이스를 완주하지 못했다. 여자 1500m에선 김길리가 2분26초306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해 코트니 사로(캐나다)를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같은 종목에 출전한 최민정(성남시청)은 동메달을 획득했다.



임종언



in hancer Plus™

관절영양제의 혁명

인한서 플러스

글루코사민 + 콘드로이틴 + MSM + 브로멜라인 + 레시틴



오프라인 전용



온라인 전용

관절 관리는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슬개골과 고관절의 염증

- 글루코사민
- 콘드로이틴
- MSM 첨가
- 브로멜라인
- 레시틴 풍부

Formulated to Keep a Dog at the Head of the Pack!